

# '인간' 이 있는 학교를 위하여

## 교육계 부끄러운 모습 고백... 대안교육의 중요성 강조

4년 전이었다. 두밀리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폐교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교육행정의 공리성을 내세우며 폐교를 강행하겠다는 행정당국에 대항하여 지역 주민들은 격렬할 정도로 반대운동을 펼쳤다. 법원까지 가는 공방전 끝에 결국 폐교가 결정되어 반대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사회적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두밀리교는 대안교육의 터전인 '반딧불학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분주하다. 반딧불학교처럼 대안교육 또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가 자생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반영한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근간이 되어 전인교육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책들이 속속 출간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학교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주범

단한 교육현장에 던지는 힘찬 함성을 지표로 출간된 소설 《학교는 다다》(이숙인 지음, 실천문화사)는 10대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교육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주인공은 “복도에서 뛰다가 기술한테 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려차기로 가슴팍을 되게 얻어맞았다. 내가 왜 펴 수 없는가. 체육시간 운동장에 늦게 나가면 여자애들 다 보는 데서 고개 처박기를 해야 한다... 환장할 것 같다”고 독백한다. 폭력과 인격무시의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교 운영의 경직성에서부터 제자를 성취행하는 추악한 모습까지 교육현장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 스스로 8년간 교직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가는 학교가 마치 잘못된 국가 권력의 축소판처럼 인간을 질식시키고 파괴시키는 주범이라고 통렬히 비판한다.

용두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우리 교육현장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들춰낸 《어린 종달새의 죽음》(이치석 지음, 삼인)은 교육현장 특히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학교장이 마치 학교를 통치하는 군주인 양 행세하는 것을 “학교에서 당직명령은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했으므로 나이가 56세 이상이거나 병이 난 교사는 면제할 수 있다. 병고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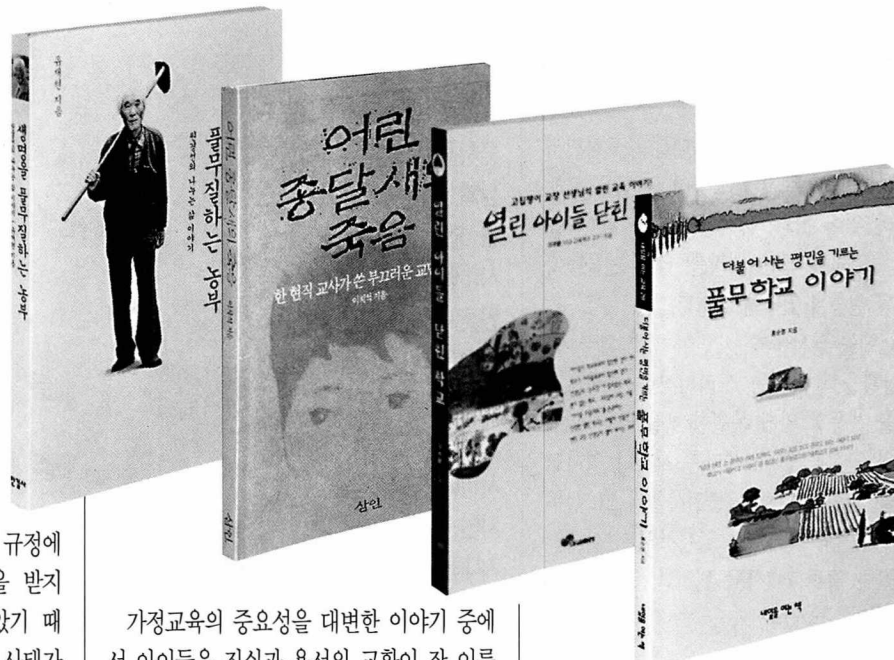
대안교육,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다. 제도교육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근간으로, 전인교육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책들이 속속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달리는 박철웅 선생도 당연히 예외 규정예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교장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교사들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개는 교장의 눈치를 살피는 선에서 무마된다.

해직교사를 둘러싼 비리, 교육적 입장보다는 이기주의적 보신을 앞세우는 교사, 상습화된 폭력(학생간 또는 학생 교사간) 등의 문제를 들춰낸다. <새 학년 분반작업과 촌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의 아파트 평수로 분반 작업을 한다”며 돈을 받고서야 반대급부로 학생배우기에 익숙한 교사들을 보면서 쓰레기통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토로한다. 한편 4대에 걸쳐 교육부장관이 바뀌고서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개정되기까지 사연도 들려준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

아무리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동안 제도권 교육이 지대한 공헌을 했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열린 아이들 닫힌 교육》(이귀운 지음, 대교출판)도 칭찬은 못할마정 험뜯지는 말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교육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이대부속 초등학교장과 교육학과 교수인 저자는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탈선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로부터 탈선했다”고 전제하며 열린교육을 주창한다. 하지만 열풍처럼 떠도는 열린교육이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늘 허울이 알맹이에 앞서는 구호성 주장들이 새로운 지식과 통제의 수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대변한 이야기 중에서 아이들은 진실과 용서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찍부터 배운다고 지적한다. “바른 대로 대면 용서해 준다”는 부모는 어린이의 바른 말을 통해 도리어 야단칠 구실을 찾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일등을 해야 한다, 일류대학 가야 한다는 식의 강압적 간섭은 결국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것이라며 “잘못하는 교육은 밀려야 본전도 못건진다”고 꼬집는다.

대안교육 또는 열린교육의 참뜻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시대의 근본 가치관,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도전에서 찾을 수 있다. 40년간 충남 홍성에서 우리식 열린교육을 실천해온 풀무학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홍순명교장의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 이야기》(내일을 여는 책)는 교육주체들의 행동방향의 전범을 보여준다.

풀무학교는 무슨 별난 교육을 하는 곳은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교육을 지향할 뿐이다. 학교는 학생 80여명과 교직원 20여명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수업은 인문과목과 실업과목을 병행하며, 대학을 가려는 학생은 인문과목을 집중 선택하고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실업과목을 듣는다. 과목과 진로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의 몫이며 책임이다.

학생들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은 참 지식과 깊은 성취감,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를 배우게 한다. 몸과 마음을 두루 건강하게 이끄는

것이 전인교육”이라는 뜻에서다. 3년 과정이 끝나면 이들은 ‘창업’을 한다. 졸업이란 단어 대신 ‘창업’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배움에 끝이 없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문화에 뿌리박은 “더불어 사는 위대한 평민을 육성”하기 위해 작은 학교를 유지하며 이웃과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

거창고등학교는 풀무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다. 풀무원 공동체를 꾸려가는 원경선의 삶을 소개한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유재현 지음, 한길사)에 소개되는 거창고등학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존중을 교육관으로 내세운다.

### 작은 학교의 가치 알 때

오래 전부터 덴마크 또는 일본은 작은 학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시골의 작은 분교를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소수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남대 김조년 교수는 “작은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심분 발휘할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교육이 나갈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요란하다. 학생을 파괴시키는 학교에서,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열린교육·대안교육을 논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교육을 이 들 책은 강조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